

영암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2년 연장

조선업 침체 장기화...정부지원 다각화 돌파구 마련
대불국가산단 활성화 주력 지역전략산업 육성 박차

영암군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주력산업인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방침이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조선 산업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 영암군은 정부 직접 지원 사업으로 120억3천만원(국비 60억원 포함)이 투자되는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 구축사업’을 확보해 대형조선소에 의존한 블록 위주 생산

에서 중소형선박제조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이다. 또한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수질보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영암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32억원의 지역 상품화폐를 발행 및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목포·해남까지 경제파급이 높은 조선업종 밀집지역인 대불국가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산업통상

자원부가 공모한 청년친화형산단으로 대불산단이 선정돼 3천113억원이 소요되는 23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

영암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1년 동안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조선기자재업체 특별보증 지원, 용접도장 인력양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위기에 처한 지역조선업 기업에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최근 들어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 회복으로 고용과 생산량 등이 소폭 늘고 있지만 아직 조선업이 본래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는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년 연장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과 대체·보완산업

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대불주거단지 와 삼호읍 소재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삼호 난전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총 22개 목적 예비 사업(국비 224억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함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된 만큼 주력산업인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드론 및 경비행기 항공 산업, 자동차 튜닝산업 등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기업과 지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원기자



신안군, 철새먹이주기 행사 신안군은 최근 국제적 주요 철새도래지인 흑산도에서 초·중학교 학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새와 사식지 보전을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 모이통 20개를 제작해 먹이제공 및 철새관찰을 위한 생태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에서 철새 이동경로를 연구하기 위한 가락지부착 과정을 견학했고 철새전시관에서는 다양한 표본 관찰과 쌍안경 사용법 등 철새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신안군제공

완도 금일읍 정주여건 대폭 개선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100억 확보

완도군 금일읍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완도군은 21일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금일 총동권역이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역점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어촌정주 여건개선과 지역특화개발을 통한 어촌 소득증대,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금일 총동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주민과 함께 협력해 비교 우위 지역자원을 발굴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준비했으며 그 결과,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내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완도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금일 총동권역을 어촌경제 리뉴얼, 청년사회공동체 형성, 함께 만드는 경관자원 등 3가지 매력을 가꿔 누구나 살고 싶은 자립어촌마을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어촌경제 리뉴얼을 위한 해조류산업 자립화를 위해 해조은행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해조마를 연구회, 청년사회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교류 증진과 새로운 공동체문화조성을 위해 아이키움 마을카페와 다문화·청년교류센터 조성, 마을이음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아이키움 네트워크와 차세대 리더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 스스로 해양쓰레기를 감소시키고 깨끗한 경관조성을 위해 페어구 리사이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총동거점항 클린사업, 권역 클린딜류시스템, 몽돌해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윤보현기자

목포해수청, 항만건설작업 선박검사 설명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규표)은 21일 항만건설작업선 선박검사 적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7년 11월 4일 이전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도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목포해수청에 등록된 항만건설작업선 14척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항만건설 작업선 관련 ‘선박안전법’ 개정 목적과 내용 ▲선박검사 시기와 절차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선박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이 항만건설작업선 검사 절차에 대해 직접 안내하고 평소 선박검사 절차와 관련해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규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항만건설작업선 소유자들이 규정에 맞게 선박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강효중기자

무안 노인질환 예방교실 운영

무안군은 21일 “오는 9월까지 일로 및 환경보건진료소 관할 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노인성질환 예방관리교실’은 노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 및 골 관절 질환을 한의약적 진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 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혈압, 혈당검사 등 기초검사는 물론, 발농사 등 농가일이 많아 이환되기 쉬운 골 관절 질환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인성질환에 대해 한의사가 개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체질에 맞는 침 시술을 제공한다.

/무안=전영태기자

목포 드림스타트 아동 안경 지원

목포시는 21일 “시력이 낮은 드림스타트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안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2011년 목포시 안경사회(회장 이현무)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시력이 약화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안경을 무료로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목포시 안경사회 회원사인 관내 6개 안경점(이노티안경북항점, 이노티안경하당점, 현대안경, 포미전문안경, 글라스박스, 아이디어안경터미널점)이 참여하며 지난 3월 건강검진 결과 발견된 시력교정 필요 아동 29명에게 전액 무료로 안경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정혜선기자



지역 수산물 효자 품목인 ‘진도 물김’이 위판액 1천115억원을 달성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진도 어민들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김 수확을 나전 모습.

/진도군제공

‘진도 물김’ 지역경제 효자 역할 톡톡

위판액 1천115억 달성 4년 연속 전국 1위 기염
미네랄 성분 풍부 맛·향 독특...소비자 인기 ↑

‘진도 물김’이 지역경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산 소득 효자 품목인 물김 위판액은 1천115억원을 달성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물김 생산이 5월 현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위판액 1천11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조생종인 잇바디물김은 작황이 좋아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일반물김은 위판이 시작되면서 높은 수온,

갯병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다.

현재 진도군의 김 양식 어업인은 204어가이며 어장 면적은 1만5천649ha에 11만807t을 생산하고 있다. 진도 김은 10월 중순부터 재취를 시작하고 다음해 5월 중순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위판액은 2017년 1천233억원, 2018년 1천273억원, 2019년 1천115억원으로 양식 초기부터 발생한 황백화와 갯병 등 해양여건 악화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진도군은 지난해 김 육·해상 채

묘 지원 사업 등에 27억5천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김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총 24억9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 김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돼 게르마늄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맛과 향이 독특하고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타 지역 김과 달리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적조가 없는 청정해역에서 양식되는 진도 김은 냉수대의 영향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시기인 10월 중순부터 채취를 시작하고 가장 늦은 시기인 다음해 5월 중순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진도=박세권기자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